

新聞에 있어서 韓日 慣用語의 對照考察*

— 語彙的·統辭的 觀點에서 —

권익호**

目次

- I. 들어가며
 - II. 조사자료와 방법
 - III. 어휘별 관용어
 - IV. 어휘적 특징
 - V. 통사적 특징
 - VI. 結
-

I. 들어가며

관용어에 대한연구가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매스컴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일비교·대조에 관한 연구도 단순히 관용어의 대조고찰에 그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어왔음을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양국의 신문을 중심으로 관용어에 대한 언어학적접근을 시도 하고자 한다. 즉 한일양국의 신문에서는 어떤 형태의 관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표현의 특징이 보여지는가 등의 어휘적, 통사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양국 신문을 통하여 매스컴상의 관용어의 특징을 양국의 신문에 나타난 관용어의 예를 중심으로 어휘적, 통사적으로 세분화하여 비교, 대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관용어에 대한 선행연구와 개념 및 정의에 관

* 이 논문은 2003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한 고찰은 본인의 졸논¹⁾에서 이미 밝힌바가 있어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였다.

II. 조사자료와 방법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한일양국 에서 각각 발행부수가 많은 저명지를 선택해 신문 전반에 나타나는 관용어를 어휘적, 통사적인 측면으로 분류, 신문에 나타난 양국어의 관용어의 특징을 고찰하고자한다. 조사자료로서 한국의 경우, 중앙일보(2000년7월1일~2000년7월31일)와 동아일보(2000년10월1일~2000년10월31일)를, 일본의 경우에는 毎日新聞(2000년7월1일~2000년7월31일)과 朝日新聞(2001년10월1일~2001년10월31일)을 선정하였다. 관용어의 선별과정에서 광고란은 본 연구에서 제외했고 일본신문의 경우 석간을 제외한 조간에 한해서 본 조사에 임했다.

III. 어휘별 관용어

본 연구에서는 어휘적 특징으로서 크게 7개 영역(신체,정신,자연,의식주,동물,식물,기타)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표-1>한·일신문의 어휘별 분포도

구 분	중앙일보		朝日신문	
	관용어수	비율(%)	관용어수	비율(%)
신체에 관한 관용어	253(195)	48.3(43.6)	186(151)	42.7(40.1)
정신에 관한 관용어	102(86)	19.5(19.2)	111(93)	25.6(24.7)
자연에 관한 관용어	46(41)	8.7(9.2)	28(25)	6.5(6.6)
의식주 생활에 관한 관용어	25(22)	4.7(4.9)	9(9)	2.1(2.4)
동식물에 관한 慣用語	10(10)	2.0(2.3)	8(8)	1.7(2.1)
기 타	88(84)	16.8(18.8)	93(91)	21.4(24.1)
합 계	524(447)	100%	435(377)	100%

※위의 분포도는 객관적 분포를 알기 위하여 양국에서 한 개의 신문만을 선택했다. 圖表안의 數字는 관용어의 총수(延べ語)이고 괄호 안의 數字는 중복관용어를 제외한 관용어(異なり語)임.

1) 拙論(2000)「日本語型慣用語借用에 關한 小考」, 大韓日語日文學會

1. 신체에 관한 관용어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바 한일 신문에서 신체부위에 관한 관용어가 <표-1>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어휘의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면에, 일본의 경우 정치면에서 그 사용도가 다른 면에 비해 많이 보였다. 다른 신문(동아일보, 毎日新聞)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여기에서는 중앙일보와 朝日新聞의 결과를 실었다.

<일본의 예>

- ① 「核がテロ組織の手に落ちる悪夢」<朝:10.16>
- ② 民主党が目を凝らすのが特殊法人改革の <朝:10.30>
- ③ 首をかしげざるを得ない。 <毎:7.28>
- ④ 投票日から口にしてきた森喜朗.. <毎:7.4>
- ⑤ アパレル関係に顔が広い和田氏を <毎:7.27>
- ⑥ 「タイ軍は麻薬流入に頭を痛めている。 <毎:7.13>
- ⑦ 足元を固めることが精いっぱいの状態だ。 <毎:7.2>
- ⑧ 社内や取引先からは「腰が低いリーダー」と評判がよかった。 <毎:7.18>
- ⑨ ことの重大さもあり、骨が折れる。 <朝:10.21>
- ⑩ 「30万人の雇用が生まれる」と胸を張った。 <朝:10.27>

<한국의 예>

- ① 박씨가 스포츠댄스에 눈을 돌린 것은 지난 1992년... <중:7.23>
- ② 그들의 모험담이 아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 <동:10.14>
- ③ 의사는 먼저 뼈를 깎는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중:7.3>
- ④ 우려를 한 몸에 받던 기업 들 이라는 점 때문에 의미가 각별하다. <동:10.23>
- ⑤ 클린턴 대통령이 '팔 비틀기' 식으로 억지 만남을 주선했다는.....<중:7.12>
- ⑥ 새로운 중재자로 발벗고 나섰다. <동:10.31>
- ⑦ 사외이사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발휘..<중:7.28>
- ⑧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동:10.11>
- ⑨ 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동:10.23>
- ⑩ “일단 호재임에는 틀림없다”고 입을 모은다. <동:10.14>

위의 예문 외에도 한일 양국에서 각각 9종류, 7종류의 신체부위별 관용어가 수록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의 예문 ⑤의 <팔 비틀기>는 일본어의 「赤子の腕(手)を捻る」에서 유래된 관용어이다.

다음의 <표-2>는 한일 신문의 신체별 부위별 사용빈도를 순위별로 정리 도표화시킨 예이다. 이번 조사결과 어휘적인 특징에서는 한일양국에서 신체외부에 관한 관용어(82%)의 사용이 신체내부(18%)에 관한 것 보다 많이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눈」

에 관계되는 관용어(57%), 일본에서는 「손」에 관련된 관용어(43%)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표-2>한·일신문의 신체 부위별 분포도

신문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중앙일보	目(75)	手(42)	足(38)	口(18)	胸(17)	身(14)	首(11)	頭(10)	顔(9)	骨(7)
朝日新聞	手(51)	目(45)	足(29)	口(23)	顔(19)	身(15)	頭(13)	腰(12)	首(10)	胸(9)

※본 연구에서는 부위별 사용빈도를 1위에서 10위까지만을 정리·도표화했다. 괄호 안의 수치는 총 관용어 수(延べ語)의 數値임

2. 정신에 관한 관용어

<일본의 예>

- ① 江澤民國家主席は21日、小泉純一郎首相に念を押した。<朝:10.27>
- ② 氣候はよし。リハビリに精を出すぞ。<朝:10.09>
- ③ 私たち家族はたいへん氣を落としていた。<朝:10.7>
- ④ 打線に活を入れたのは7回から登板した...<朝:10.8>
- ⑤ 平和の配當としてもたされた財政黒字の使い道に心を碎くあまり、<朝:10.12>
- ⑥ 応援に熱が入るものだ。<毎:7.28>
- ⑦ 本壘打を含む4安打と氣を吐いた。<毎:7.4>
- ⑧ 氣にならない現實に對して <毎:7.14>
- ⑨ 十分に氣を配るように」と側近に指示した。<毎:7.23>

<한국의 예>

- ① 현대는 간판 스타들과 협상에 애를 먹고 있다。<중:7.31>
- ② 형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중:7.10>
- ③ 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씀도 못했다。<중:7.7>
- ④ 팬들은 어이없는 역전패에 넋을 잃고 길바닥에。<중:7.4>
- ⑤ 서비스 부재를 보는 것같아 마음이 씩씩하다。<중:7.26>
- ⑥ 애써 키운 자식 내보낼 때처럼 안타까울 때가 많다。<동:10.6>
- ⑦ 스스로 한다는 건 꿈도 못 꾸었는데 <동:10.17>
- ⑧ 프로축구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동:10.3>
- ⑨ 받은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동:10.6>
- ⑩ “거론될 때마다 “역장이 무너진다”고 말한다。<동:10.24>

이 영역에서 한국어의 예문①처럼 <애를 먹고있다>의 <애>에 관련된 관용어와 예문 ⑤의 <마음이 씩씩하다>의 <마음>을 이용한 관용어가 정신에 관련된 관용어 중에서

60%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예문②「애타게」와 같은 형태의 부사형 관용어가 많이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일본의 신문에서는 <氣> <心> <念> <夢> <精> 등에 관련된 관용어가 전반적으로 주를 이루고있는데 한국의 경우와 달리 몇 개의 소수 어휘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폭 넓게 분포되었다.

3. 자연에 관한 관용어

<일본의 예>

- ① 選手育成システムに一石を投じたのだった。 <朝:10.30>
- ② 多數犠牲にすること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だ。 <朝:10.17>
- ③ 銀行などの經營に暗い影を落としている不良債權 <朝:10.7>
- ④ 教科書問題など政府の方で水を差している時こそ <朝:10.23>
- ⑤ ある程度の星は擧げられると思っていたと <朝:10.6>
- ⑥ 自民党が食い物にしていると言う氷山の一角だ。 <毎:7.3>
- ⑦ 小選挙区では組織の弱い党に「風は吹きにくいと言われる。 <毎:7.4>
- ⑧ 紛争の火ぶたが切って落とされて、 <毎:7.11>
- ⑨ 波に乗り遅れまいとするクリントン政権 <毎:7.30>
- ⑩ “4者會談は昨夏から暗礁に乗り上げ”、 <毎:7.11>

<한국의 예>

- ① ...롯데의 추격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7.3>
- ② 부패적결 등을 내세우며 멕시코 국민의 '바뀌 열망' 에 불을 질렀다. <중:7.4>
- ③ ...익숙해진 직원들은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다. <중:7.7>
- ④ 안정심리가 현대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동:10.18>
- ⑤ 남편이 제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어요 <중:7.26>
- ⑥ 매각 성사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에 있다. <동:10.7>
- ⑦ 호황에 힘입은 것으로 거품이 심했다.”고 말했다. <동:10.11>
- ⑧ “당신이 뭔데 재를 뿌려”하고 <동:10.12>
- ⑨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말았다. <동:10.17>
- ⑩ “회오리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10.23>

위의 <일본의 예⑤> 예문에서와 같이 일본에서는 <별>에 관련된 관용어가 많은데 이는 스포츠 면에 많이 나타난다. 한국어예문에서는 <물><불>에 관한 관용어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일본의 예문에서도 <불>에 관계되는 관용어가 상당히 눈에 띄었다. 그러나 <표-1>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국어의 관용어가 훨씬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바람>에 관한 관용어가 경제면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있다<동:10.17>>와 같이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보였다. 이것은 한 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衣食住、생활에 관한 관용어

<일본의 예>

- ① パキスタンの政情不安にも油を注ぎかねない。 <朝:10.8>
- ② 人間關係を築く自信の能力の缺如を柵に上げて、 <朝:10.30>
- ③ 大きな事件が起きると、歌詠みたちは筆を取る。 <朝:10.16>
- ④ 企業と政治家を結ぶ太い糸となっている。 <毎:7.31>
- ⑤ 「～覚えておいてほしい」とクギを刺した。 <朝:10.7>
- ⑥ 「自立度」を占うカギとなるのはそのためであり <毎:7.17>
- ⑦ フタを開けるとこの結果である。 <毎:7.2>
- ⑧ 金融再生委員長就任にお墨付きをあたえた。 <毎:7.31>
- ⑨ 千代田は相互會社で、持ち株の傘の下に入るのは困難だ。 <毎:7.1>
- ⑩ “省益巡り綱引きも <毎:7.8>

<한국의 예>

- ① 백악관 비서를..... TV 출연과는 담을 쌓고 지냈다. <중:7.6>
- ② 컬러복사 위조는... '누워서 떡먹기' 가 될 뻔 했다 고 보도했다. <중:7.13>
- ③ 우리 연극계에서 '찬밥' 신세인 어린이 연극에 <중:7.11>
- ④ 자금난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벤처기업들 <동:10.4>
- ⑤ 국회법 개정은 3당 총무사이에 내연화된 뜨거운 감자였다 며... <중:7.24>
- ⑥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부가 뒤늦게 <동:10.7>
- ⑦ 그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동:10.10>
- ⑧ 주체와 객체의 벽을 허물고 상호 대등하게 <중:7.25>
- ⑨ 만일의 상황에 대비, '바람막이'를 쳐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동:10.11>
- ⑩ 자금난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다. <동:10.12>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경우 예문 ④와 한국의 경우 예문 ⑤인데 이들은 관용어로서 아직 널리 대중성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관용어의 기능을 갖추고있는 관용어 형성기에 놓인 예문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관용어가 특히 한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5. 동식물에 관한 관용어

<일본의 예>

- ① 強硬姿勢を強め、「窮そ猫をかむ」ようなテロ攻勢に出ることもあり得る。 <朝:10.7>
- ② デルピエロはけがが尾を引き、 <朝:10.7>
- ③ 國民の失望はもっと根が深いのではないか。 <毎:7.13>
- ④ 苦蟲かみつぶしてると、子どもは <朝:10.9>
- ⑤ 主將の責任感が土壇場で、實をむすんだ。 <朝:10.9>
- ⑥ 私らは靜内の地に根を下ろす以外に生きる道はないのだ。 <朝:10.15>
- ⑦ 一轉して更迭に踏み切った。トカゲのシッポ切りである。 <毎:7.31>
- ⑧ 与党は「二兎は追わない」というが <毎:7.5>
- ⑨ 「十日の菊六日の菖蒲」と言っている。 <毎:7.11>
- ⑩ ネコかぶりという言葉があるが、怪鳥は優雅なシラサギかぶり。 <毎:7.27>

<한국의 예>

- ① 이들 제품에 약방의 감초격으로 들어간 비타민도 <중:7.26>
- ② ...공동체로 일본에 뿌리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중:7.17>
- ③ 미군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꼴' 이었던 우리 정부는... <중:7.24>
- ④ 이승엽은...구대성 콤플렉스' 에서 벗어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중:7.12>
- ⑤ 여러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중:7.26>
- ⑥ 대박은 개미 몰래온다? <동:10.18>
- ⑦ 공세에 시달리며 게걸음질을 하고 있다. <동:10.4>
- ⑧ 누구의 허물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동:10.7>
- ⑨ 많은 글과 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기보다는 <중:7.27>
- ⑩ “간신히 미네소타에 둥지를 틀었다. <동:10.3>

특히 일본어의 경우 동물에 관한 관용어 중에서 「猫(고양이)」 「鼠(쥐)」에 관한 관용어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다양하게 동물에 관한 관용어가 사용되었다.

식물에 관한 관용어는 한국의 표현이 다채롭게 사용되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뿌리(根)나 열매(實)등에 관계되는 관용어가 많이 보였다.

6. 그 외

<일본의 예>

- ① 一か八か(古田)のリードで、 <朝:10.7>

- ② 勝負つ氣のある前田には打者の裏をかく <朝:10.15>
- ③ やり玉に擧げられている。地盤沈下は明らかだ。 <朝:10.7>
- ④ 高速化に一層の拍車がかかっている。 <朝:10.17>
- ⑤ 五輪や世界選手権のメダリストがしのぎを削る日本代表レースにも <朝:10.10>
- ⑥ 衆院議長は言い残し、橋本氏にバトンを渡した。 <毎:7.16>
- ⑦ 共産の後退で幕を閉じた。 <毎:7.18>
- ⑧ 鬼の首をとったようなことをいうつもりはない。 <毎:7.4>
- ⑨ バブルにうつつを抜かした金融機関... <毎:7.1>
- ⑩ “政治に根本的にメスを入れる時期だ <毎:7.14>

<한국의 예>

- ① 신문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늘 뒷북만 쳐대며..... <중:7.6>
- ② 교원정년 단축과 무더기 명예퇴직으로 홍역을 치렀던 교단이... <중:7.6>
- ③ 민주당이 이 문제에 총대를 멘다 해도 자민련이..... <중:7.24>
- ④ 개혁의 고삐를 당기려는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중:7.4>
- ⑤ 인의협이 반 의사 단체로 낙인찍힌 것이 안타깝습니다. <중:7.3>
- ⑥ 퇴출기업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동:10.6>
- ⑦ 두 회사가 반도체라는 한배를 탔다는 <동:10.20>
- ⑧ 폭락하면서 3000선에 턱걸이했다. <동:10.14>
- ⑨ 뉴욕증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동:10.16>
- ⑩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10.18>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를 더 세밀하게 예를 들면 인간 관계, 종교, 문화, 군대, 병명, 숫자, 지명, 색깔 등으로 분류해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 조사에 임했다. 양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용어가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한일신문에는 각 면에 걸쳐 관용어가 폭넓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체에 관한 관용어가 다른 관용어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양국어 사전에서도 신체에 관한 관용어의 비율이 매우 높지만 특히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조사 결과 한국에서는 사회면에 일본에서는 정치면에 비교적 많이 보였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그다지 정치적 관심이 없는 일본인들에 대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고있는 정치적 이슈 문제들을 신체표현을 이용해 독자들로 하여금 알기 쉽고 관심을 유발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면에 많이 나타난 것은 사회면의 내용전체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독자들로 하여금 직설적 표현보다는 관용어를 사용하여 어둡고 답답한 사회의 현실을 보다 밝고 긍정적 방향으로 선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용어가 많이 탄생된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면 <뜨거운 감자, 개미군단, 널뛰기 장세>등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 활발히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적, 국민적인 관심도를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IV. 어휘적 특성

관용어에는 은어적, 속어적, 전문어적, 유행어적 특성을 지닌 것이 많이 있다. 이들은 의미상의 특징에 의해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문상에 나타나는 이들의 특성에 잠깐 언급하고자한다. 왜냐하면 신문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현이 생성되고 또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용어가 탄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 은어적 특성

은어적 특성을 지닌 관용어는 처음 생성시 특정집단에 의해서 사용하기 시작된 것들이 점점 대중성을 얻어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을 말한다.

- <한국의 예> ① 깡통모임<중:7.26> / ② 검은 돈<중:7.27>
 ③ 검은손과 결탁하다<동:10.2> / ④ 손을 털어<동:10.16>
 ⑤ 10월에 동방금고를 인수함으로써 소쩍새가 울었다.<동:10.26>
 ⑥ 이때 제대로 대응했으면 국화는 피지 못했을 것이다.<동:10.26>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경제분야에서의 나타났는데, 특히 예문 ⑤⑥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관용어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일본의 예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 속어적 특성

관용어는 일반적으로 俗語의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언어생활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대체적으로 비속성의 형태로 표현된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속어적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관용어는 그 생성시기가 오래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 <한국의 예> ① 빵튀기하다 <중:7.26> / ② 죽을 쑤고 있다 <동:10.2>
 ③ 찢어지게 가난했던 <중:7.12> / ④ 코 께일라 <동:10.12>

⑤ 고개숙인 남자<중:7.6>

예문 ③은 본래<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에서 시작된 말로 서민 계층에서 사용된 속어로 지금은 관용어로 굳어진 말이다. 또한 예문 ⑤도 세태를 반영한 속어의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전문어적 특성

전문어적인 관용어는 처음에는 전문분야에서 쓰이기 시작했으나 사회전반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그 전문에 관계되는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관용어이다.

<일본의 예> - おおだい(大臺)をこ(越)える

<한국의 예>

- ① 뒷문 상장<동:10.14> / ② 보쌈형 금융 상품<동:10.24> / ③ 주식스와핑<동:10.14>
- ④ 피부로 다가오다<동:10.14> / ⑤ 낙하산 인사 <동:10.30>
- ⑥ 널뛰기 장세<동:10.16> / ⑦ 뜨거운 감자<동:10.24> / ⑧ 개미군단<동:10.14>
- ⑨ 폭탄선언<동:10.7> / ⑩ 얼굴 도장<동:10.14> / ⑪ 눈먼돈<동:10.4>

일본의 예문에서 “おおだいをこえる”는 증권시장에서 백엔을 단위로 하는 가격의 범위로써 사용되는 경제분야의 전문어적인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도 대부분이 경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4. 유행어적 특성

지금까지 1~3까지는 어느 정도 집단성을 띤 관용어로서 쓰이고 있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행어와 같은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집단성과 대중성을 얻지 못한 관용어를 지칭한 유형이다.

<한국의 예>

- ① 깃털과 몸통<동:10.4> / ② 대박의 꿈<동:10.18> / ③ 휴지통 신세<동:10.24>
- ④ 스킨십 경영<동:10.28> / ⑤ 짙은 백합냄새<동:10.30>

V. 통사적 특징

본 연구에서는 관용어에 대한 통사적인 특징을 양국어의 통사적인 제약의 정도성과 관련해서 약 3가지의 유형별로 분류, 이를 대조, 비교 고찰하였다. 원래 관용어의 통사적 제

약은 한일 양국 모두 제약에 따른 여러 형태의 유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3가지의 유형인 예를 들면 삽입, 대치, 생략, 등으로 한정해 조사에 임했다.

1. 挿入

일반적으로 관용어는 구성 요소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요소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면 관용 의미를 잃기 쉽다. 그러나 체언형 관용어의 경우는 제약이 심하여 수식이 불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용언형 관용어나 서술형 관용절의 경우와 같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의미를 강조하거나 확장하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관용어의 의미가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예>

- ① 銀行などの經營に暗い影を落としている不良債權 <朝:10.07>
- ② 總務省が重い腰をあげた <朝:10.17>
- ③ 抵抗の息の根が完全にとめられるには、この國が戦争と高度成長期を <朝:10.22>
- ④ 世論の厳しい目を浴びながら政權の弱體化は避けられないものになった。 <毎:7.31>
- ⑤ ..工場事故で、大いに反省した。臨界事故でも深く頭を下げた。 <毎:7.3>
- ⑥ ようやく回復のし始めた景氣に冷水を浴びせかけるおそれがある。 <毎:7.14>
- ⑦ 5月27日以來の白星を舉げた。 <毎:7.1>
- ⑧ 體は動いていると思うが、ただ勝ち星にならない。 <毎:7.11>
- ⑨ 首位の鹿嶋は、.....後期初の黒星を喫した。 <毎:7.30>

<한국의 예>

- ① 이를 악물고 마운드에 오른 <중:7.5>
- ② 두산의 추격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7.31>
- ③ 일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문다. <중:7.5>
- ④ 중소기업체들이 일손이 모자라 제품을 제 때 수출하지 못하는 ... <중:7.19>
- ⑤ 해외과학기술학술지의 구독·활용에 새바람이 일고 있다. <중:7.4>
- ⑥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유럽에서도 된서리를 맞게 됐다. <중:7.25>
- ⑦ 이틀째 80포인트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동:10.19>
- ⑧ 美 장기호황 급제동 걸리나 <동:10.3>
- ⑨ 별걱정을 안하다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동:10.7>

위의 예문에는 관용어의 구성요소에 명사나 부사가 삽입된 경우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 명사의 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형용사의삽입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예문 ③ ⑦과 같이 부사어의위치가 관용구절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문금현씨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

과 같이 밝히고 있다.

관용표현 내부에 삽입되어 후행 요소를 수식하는 경우도 각 예마다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수식어가 관형어인 경우는 삽입에 제약을 보이고, 수식어가 부사어인 경우는 비교적 자유롭다. 그 중에서도 부사어의 위치가 전체 관용 구절의 앞에 오는 수식이 관용 구절 사이에 끼어 든 것보다 문맥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즉, ‘목적어+서술어’의 구성 사이에 부사어가 삽입되면, ‘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가 되어 서술어를 강조하거나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되는데, 이 구조는 ‘부사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 보다는 문맥이 덜 자연스럽다. 예를 들면 “?이번 일로 애를 무척 태웠단다.”는 가능하긴 하지만 덜 자연스러운 반면, “이번 일로 무척 애를 태웠단다.”는 더 자연스럽다.²⁾

일본의 경우, 예문 ⑦의 <白星を擧げた> ⑧의 <勝ち星にならない>는 원래<星を擧げる>에서 시작된 말로 구성요소<星>앞에 <白><勝ち>를 삽입하여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관용어로 굳어진 형태이다. 예문⑨의 <黒星を喫した>도 <星を擧げる>에서 시작되었으나 반대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앞에<黒>를 붙인 관용어이다. 그런데 이 경우 서술어로서는 <あげる>가 아니고 <喫する>를 연결시킨 것이 흥미롭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서도 체언형 관용어의 삽입형태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문금현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³⁾

수식어 삽입 현상에 이러한 제약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용 표현의 구성 자체가 구성 요소들끼리 상당한 응집력(결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용 구절은 구성 요소들의 의미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관용 의미)를 가지므로, 이들 의미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의미 변화를 수반하는 단어들만을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식어+피수식어’의 구성에서 피수식어가 A+B의 구성 성분 중 하나에만 한정되면 어색하나(그 중에서도 A, 즉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는 더 어색하고 B, 즉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는 덜 어색함), A+B의 구성을 하나의 단위로 하면 수식이 훨씬 자연스럽다. 요컨대, 체언형 관용구는 구성 자체가 ‘수식어+피수식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삽입된 요소가 관용 의미를 깨뜨리기 때문에 수식이 불가능하다. 용언형 관용구는 비교적 수식어 삽입이 원활하며, 서술형 관용절은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2) 문금현(1998)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0~p.101

3) 문금현(1998)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1

2. 대치

2.1. 어휘 형태소

관용어의 구성에서 어휘 형태소를 대치시키면, 일반적으로 관용 의미가 상실되고 말지만 두 단어의 관계가 유의어 관계라든가, 미세한 의미 차이를 가지는 경우는 관용 의미를 잃지 않고 대치가 가능하다(<일본의 예>①). 그러나 간혹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로 대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일본의 예>②와 <한국의 예>③⑦).

<일본의 예>

① こういう結果になっては意味がないと口をかんだ。(唇をかむ) <朝:10.21>

② ネコかぶりという言葉があるが、怪鳥は優雅なシラサギかぶり。(ネコかぶり)

<毎:7.27>

③ Jリーグ今日の見どころ-苦境の川崎フアール一矢なるか(一矢を報いる) <毎:7.1>

④ 本部の二の舞になる可能性もある。(二の舞に踏む) <毎:7.13>

<한국의 예>

① 승부근성에선 국내최고라는 명성에 먹칠을 했다.(얼굴에 먹칠하다) <동:10.3>

② 소속팀선수의 빛나는 타이틀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는 평가다.(얼굴에 먹칠하다)

<동:10.14>

③ 귀에 쓴게 보약이 되기도 한다.(입에 쓴게 보약이다) <동:10.21>

④ 死刑制 이젠 ‘마침표’ 찍읍시다.(종지부를 찍다) <동:10.17>

⑤ 최근 벤처 기업의 자금난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다.(불 난 집에 부채질하다)

<동:10.12>

⑥ 정치인들과 사진을 찍으며 ‘얼굴 도장’을 찍으려는(눈 도장) <동:10.25>

⑦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리는 체육 진흥 투표권(황금알 낳는 거위) <동:10.30>

위의 예문에서는 대부분이 주어나 목적어를 대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의 예>

③④는 서술어의 대치 형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서술어의 대치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3. 생략

관용 표현의 생략은 일정한 문맥만 주어지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 서술어, 조사 등의 생략형태인 어휘 생략형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3.1. 주어 생략

① 국회 결산도 걸 훑기 (수박 걸 훑기) <동:10.6>

② 단 연 비과세 펀드가 뽑힌다.(손뽑힌다) <동:10.2>

3.2. 서술어 생략

<일본의 예>

- ① 「對戰打者」で白星(白星をあげる) <每:7.3>
- ② 中尾元建設相逮捕－自民に冷や水(冷や水を浴びせる) <每:-7.1>
- ③ 受託收賄容疑で逮捕－「許マナー」にメス(メスをいれる) <每:7.1>
- ④ ゼネコンにクギ(釘をさす) <每:7.13>
- ⑤ 草の根ボランティアしよう(草の根を分けて捜す) <每:7.5>

<한국의 예>

- ① 대우차 임원 금주 절반 물갈이 (물갈이를 한다) <동:10.16>
- ② 아셈 마케팅 불꽃(불꽃을 튀기다) <동:10.19>
- ③ 기업퇴출 급류(급류를 타다) <동:10.21>
- ④ “경호우선”정상들만의 잔치- (잔치를 벌리다) <동:10.21>
- ⑤ ‘미사일 조율’내용 촉각(촉각을 곤두세우다) <동:10.24>
- ⑥ 분리수거 싸고 與野 입씨름(입씨름을 하다) <동:10.24>
- ⑦ 시범경기 돌풍(돌풍을 일으키다)<동:10.24>
- ⑧ 합의내용 ‘귀에 걸면 귀걸이’ 式...해석에 시각 差(코에 걸면 코걸이) <동:10.6>

위의 예에서처럼 생략되는 성분은 주로 ‘목적어+서술어’, 인데 한국의 예⑧처럼 오랜 세월동안 사용되어 사람들의 귀에 익숙해 있는 것은 한 구절을 생략하여 간략하게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

서술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의사합성어가 대부분이다. 서술어의 생략은 의사 합성어 이외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것들이 생략 가능하게 된 것은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단어가 자체가 관용구를 대신하여 통시적으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위의 예처럼 공시적으로 생략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통시적으로 생략형이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3. 조사 생략

<일본의 예>

- ① 兵糧攻め 知恵絞る <朝:10.12>
- ② 決勝の暴投を呼び、タメ押し適時投。 <朝:10.8>
- ③ 不況阻止 旗掲げる <朝:10.24>
- ④ パキスタンに肩入れた米國は、 <朝:10.2>
- ⑤ 巨大與党の壁に風穴 <每:7.4>

⑥ 日本經濟まだ異常事態一雇用惡化に齒止め <每:7.5>

⑦ 千代田生命再建一解約齒止め、競争力がカギ <每:7.1>

<한국의 예>

① 위탁자 미수금' 증가상승 걸림돌 <중:7.4>

② 한국 축구 올림픽 8강 파란불 <중:7.29>

③ 불황과 실직에 노숙까지 겹치면서 '고개 숙인 남자' 가... <중:7.6>

④ 한 남자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다. <중:7.14>

⑤ 재경위까지 불똥 튄 관치금융 논란 <중:7.11>

본 연구 조사결과 한국의 경우는 주격조사 생략형태와 목적격생략형태의 비율이 거의 동등한 반면(43:38) 일본의 경우 주격생략형태가 극히 미비하고 목적격생략형태가 90% 가까이 나타났다.

3.4. 명사+ 조사

① 사랑이 있는 곳이면 늘 감초처럼 나오는 ... (약방의 감초) <중:7.21>

② 하나로 거론되는 낮두꺼운 낙하산인사만 (낮가죽이 두껍다) <중:7 03>

③ 극장 고급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 <중:7.27>

이 경우에는 일본의 예를 찾을 수 없으며 한국의 예에서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3.5. 명사

① 또 여름인가. 휴가철이면 바가지가 기승이다 (바가지 요금) <중:7.21>

위의 예는 합성어의 한 형태소가 생략된 예로 본 연구조사에서 유일한 예이다.

전반적으로 통사적 특징 중의 하나인 생략의 형태는 격조사(가-이/가)의 생략이었다. 지금까지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관용어의 조사생략은 한일 양 신문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일본의 경우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목적격 조사는 물론 주격조사 및 접속조사 등이 생략되어 일본보다는 폭 넓은 생략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아무튼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생략의 형태가 양국모두 가장 크게 나타났다.

VI. 結

본 연구 결과 신문지상에서 전반적으로 관용어가 일본보다는 한국이 폭 넓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관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매스컴의 기능을 보다 함축적이고 원활히 전달하려는 우리말의 표현 형태를 엿 볼 수 있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다. 또한 양국 신문 각 면마다 은어적, 속어적, 전문어적, 유행어적 특성을 지닌 관용어가 탄생되어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일양국 모두 통사적 특징을 고찰한 결과 대치 삼입 생략형태의 관용어가 많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 조사와 술어 등이 생략된 형태의 관용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시대와 상황에 맞게 代置된 표현이 많았다(예: 뜨거운 감자, 개미 군단, 고개숙인 남자 등).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는 본 연구에서 다 수행하지 못했던 통사적, 의미론적 고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용론적 고찰도 시도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강위규(1990) 「우리말 관용표현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94-101
- 權益湖(1998) 「身體慣用句의 考察」, 大韓日語日文學會 pp.98-99
- 權益湖(2001) 「韓國語の中に見られる日本語系慣用句について」, 東アジア日本語教育・日本文化研究 pp.312-314
- 문금현(1998)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95-120
- 정광(1992) 「근대국어 연구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연구 방법의 모색」, 어문논집 pp.99-116
- 宮地裕(1982) 『慣用句の意味と用法』, 明治書院 pp.238-255
- 鈴木孝夫(1981) 『日本語の語彙と表現』, 大修館書店 pp.154-180
- 日本大辭典刊行會(1981) 『日本語國語大辭典』, 小學館 第7卷 pp.847-855
- 白石大二(1986) 『國語慣用句大辭典』, 東京堂出版 pp.527-537

要 旨

私たちの言語生活の中で新聞は現代社會では缺かせないものとして位置つけられている。特に新聞は日常生活で言語學的または文化的にもかなり影響を與えている。今回の研究ではこういう觀點から兩國で發行されている新聞を參考資料として取り上げ、慣用語にたいする言語學的なアプローチをしようとする。そして兩國の慣用語を對照、比較しながら兩國語での語彙的、統語的特徴を考察することにした。まず語彙的な研究の結果、兩國とも身體に關する慣用語が全體の慣用語の中で約半分くらいを占められていることが今回の調査で分かった。特に韓國の場合は社會面で日本の場合は政治面で身體に關する慣用語が多く見られていた。また本研究では全般的に韓國の方が日本より慣用語が幅廣く使われており、新しい慣用語つまり新造語が多く使われているのが分かった。要するに俗語的、隱語的、流行的な特徴の慣用語が數多く用いられていた。

そして統語的特徴では韓日兩國とも代置、挿入、省略の形態の慣用語が多く見られているがその中で助詞と述語などが省かれたものが一番多く用いられていた。また先にも述べたが韓國の場合、新しい慣用語が多く現れているがこれはその社會の狀況と時代の流れに適した表現であろう。最後にこれからの課題として今回の研究では果たせなかった意味論的、語用論的研究にも試みたいと思う。

キーワード: マスコミ上の慣用語, 慣用語の使用瀕度, 韓日慣用語の特徴, 語彙別慣用語, 語彙の特徴, 統語的特徴

투 고 : 2003. 11. 28

2차 심사 : 2003. 12. 19

3차 심사 : 2004. 1. 8

住 所 : (450-152)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한빛선경아파트 103동 1104호

電 話 : 031-652-7836

E-mail : kwonikho@empal.com